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5.13(월) 09: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미주통상과 김정회 과장(2110-5381), 김장희 서기관(2110-5384)
투자유치과 전윤종 과장(2110-5361), 위승복 사무관(2110-5366)
자원개발전략과 유법민 과장(2110-5530), 김종현 사무관(2110-5528)

# 대통령 미국순방 경제분야 주요성과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 - 외투 유치, 에너지협력 공동성명, 경제인 행사 등 -

## 1 대통령 미국순방 개요

○ 방문기간·도시 : '13.5.5(일)~10(금) 4박 6일, 미국(뉴욕, 워싱턴 D.C., LA)

○ 수행경제인 : 52명

* 경제단체장 5명, 한노총 1명, 대기업 17명, 중견 9명, 중소 12명, 금융 5명, 분야별 4명 등

## 2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식 (5.6(월))

□ 보잉社 등 미주 지역 7개 기업이 총 3.8억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

① 보잉社는 그간 항공기 판매에 그쳤으나, 경북 영천에 항공정비센터 형태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

○ 정부는 경북영천을 보잉사 항공정비의 아태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근 지멘스(발전설비), GE(해양플랜트), 바스프(전자소재) 등 글로벌기업은 우리나라에 지역본부 설치를 발표한 바 있음

② 최초의 동력비행으로 유명한 라이트 형제가 설립한 커티스-라이트社는 금번에 원자로용 제어밸브에 투자하였으며, 향후 R&D센터 투자에도 관심을 표명



○ 글로벌 중견전문기업의 생산시설과 R&D센터 유치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바,

○ 정부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일본의 소재전문기업과 함께 미국의 첨단부품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해나갈 계획임

③ 올모스트 히어로스社의 투자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부문 최초의 외국인 직접투자로서,

○ 외국인투자를 통해 제작비를 마련하고, 동시에 미국 시장 보급 채널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

□ 금번 뉴욕에서의 투자유치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신뢰하고 투자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

○ 최근 북한의 위협적 발언 때문에 리스크가 상승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투자유치를 통해 상기 우려가 불식

- 미국 현지 투자가 면담時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투자기회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 투자가들의 우려는 크지 않으며,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부품소재 R&D센터 및 양질의 서비스 부문 유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3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 (5.7(화))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7(화) 미국 에너지부 장관대행(Daniel B. Poneman)과 면담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을 발표

□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된 협력 사업은 ① 세일가스, ② 가스하이드레이트, ③ 클린에너지 기술, ④ 클린에너지 장관 공동회의(CEM*) 협력 등임

* CEM : Clean Energy Ministerial

① 양국간 세일가스 전문가 교류에 합의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실질적인 세일가스 개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세일가스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산업부는 공동성명 합의내용을 토대로 세일가스 개발기술 확보와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임

- (상반기) 양국 전문가 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의제를 발굴
- (하반기) 세일가스 개발 중심지인 美, 휴스턴에서 양국 정부 주도로 정책/시장/기술 등 3개 분야에 걸쳐 전문가 Workshop을 개최

②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야는, 양국 전문연구 기관이 참여하는 생산기술 공동연구를 늘려나가고, 한국이 독자 추진중인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미국측 관련 전문가 참여도 지속 추진할 계획

③ 스마트그리드·수소연료전지 등 클린에너지 분야는 하반기중 신재생/에너지 저장/온실가스 감축 등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 R&D 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임

④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클린에너지 장관회의는 2014년 한국에서 제5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은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 한편, 한미 정상회담(5.8) 이후 발표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는 한미 FTA가 제조업·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양국간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미래이슈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 4 경제인 행사 (5.8(수))

### 1 대규모 수행경제인 방미

□ 금번 방미에는 경제 5단체장과 삼성·현대차·LG 등 대기업 대표, 중소·중견기업 20여명, 여성기업 등 분야별 대표, 문진국 한노총 위원장 등을 포함한 52명의 수행경제인이 동행

□ 50여명의 대규모 수행경제인이 동행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

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분야별 대표, 노동계 등이 미국 순방에 단합된 모습으로 동행함으로써 북핵위기 하에서도 한국경제가 건실하고 이상 없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

② 수행경제인들이 창조경제의 현장인 미국에서 한국경제의 역동성과 신뢰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민간 경제외교사절단' 역할을 수행

③ 중소·중견기업이 20여명이 포함되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동포경제인, 미국기업인 등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

□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① 중소·중견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중동 등 신흥 경제권 국가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여 진출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② 해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인간 상생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2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

□ 5.8(수) 08:00-09:00간 개최된 박 대통령과 수행경제인간 조찬간담회를 통해 주요기업인들과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국내 투자와 고용확대, 창조경제를 위한 한미간 협력 증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① 삼성·현대차·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고용확대, 창조경제 구현 등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으며,

② 중소·중견·벤처기업들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③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의 주인공은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인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해소하는 등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강조

□ 산업부는 30대 그룹이 계획하고 있는 149조원의 투자계획을 비롯,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투자 확대, 동반성장, 창조경제 등 부문에서 기업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계획임

### 3 한미 경제인 행사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경제인 오찬)

□ 5.8(수) 13:00-14:30간 진행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한미 경제인 오찬에는 한국의 수행경제인과 GM, 퀄컴, 보잉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이 참석하여 네트워킹 기회를 가짐

□ 한미 경제인 행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음

① 최근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고,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표명하는 등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라는 점을 확인

※ 미측 주요참석자 :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스티브 밴 앤델 미 상의 이사회 신임의장,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社 수석부회장,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 빌 로즈 씨티그룹 수석고문 등

② 둘째, 한미 FTA와 창조경제 정책기조를 통해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한미 기업인간 공감대를 형성



③ 특히, 한노총 위원장이 참석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노사문제에 대해 가졌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상생적 노사관계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

□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해나가는 한편, 한미 기업인들이 한미 FTA의 실질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김장희 서기관(☎ 02-2110-53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투자 신고식 행사개요

### 1. 투자 유치활동 개요

○ **(목적) 정상 訪美에 맞추어,** 경제중심지 뉴욕에서 새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의지를 표명하고, 7개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

○ **(행사명)** 2013 Korea Investment Ceremony, organized by Motie

○ **(일시)** '13.5.6(월), 10:00~11:00(현지시각)

○ **(장소)** 뉴욕 Lotos Club(맨하탄 소재) 3층 Wedgwood Room

○ **(참석자)** 산업부 장관, KOTRA 북미지역본부장, 투자기업 대표 등

### 2. 투자신고 프로젝트 주요 내용

(단위 : 백만불)

| 투자가 | 프로젝트 | 금액 |
|---|---|---|
| 보잉* (Boeing) | · 경북 영천 유지보수(MRO)센터 | 처음 20<br>시설확대 후 100 |
| 커티스 라이트 (Curtiss Wright) | · 원자로용 특수벨브 제조<br>· 라이트 형제가 창업한 기업 | 30 |
| 올모스트 히어로스 (Almost Heros) | · 에니메이션 창작 · 해외 마케팅 등 전 과정 유치 | 20 |
| D社 | · 임상실험센터 | 30 |
| S社 | ·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 | 120 |
| G社 | · 평창 올림픽 관광 레져시설 | 70 |
| K社 | · 항만 물류센터 설립 | 10 |
| 계 | | 380 |

* (보잉) 먼저 2천만불을 투자하고, 시설확대를 거쳐 1억불로 확대 예정



## 참고2 산업부 장관 - 미 에너지부 장관대행 면담 개요

☐ **(일시) 5.7(화) 오전 09:35 ~ 10:15**

☐ **(장소) 美 에너지부**

☐ **참석자**

○ 우리측 : 산업부 장관, 통상정책국장, 미주통상과장, 자원개발전략과장, 상무관 등

○ 미국측 : 다니엘 폰만 (Daniel B. Poneman) 에너지부 장관대행 등

☐ **면담 주요의제**

○ 산업부-에너지부 에너지협력 공동성명

○ 기타 클린에너지, 스마트그리드, WEC 등 관련 협력방안

**<한-미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 주요내용>**

① 세일가스 협력: 세일가스 관련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

② 가스하이드레이트(GH) 협력: 한-미 가스하이드레이트 SOI* 연장을 통해 협력 지속 추진

*GH SOI(Statement of Intent)

○ (목적) 韓-美간 가스하이드레이트 공동연구, 기술인력 교류, 미국내 현장 시험생산 프로젝트 참여

○ (기간) '08.4.18~'13.4.17(5년) → 무기한 연장('13.5월)

○ (주요실적) 지자연-로렌스버클리 및 북서태평양연구소간 생산 모델링 공동연구, 공동 기술워크샵(2회), 울릉분지 현장시추('10년)에 미국참여

③ 클린에너지 공동 R&D: 기존 공동 R&D[1], 정보·인력 교류 등 기술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양국간 협력을 확대[2]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수소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2)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온실가스감축 등

④ CEM(Clean Energy Ministerial):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차 CEM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 [첨부] 韓-美 에너지협력 장관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May 7, 2013

Acting Secretary of Energy Daniel B. Poneman and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met on May 7, 2013, at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where they exchanged views on cooperation on a wide range of energy priorities.

They noted the importance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for energy security,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while mitigating the effec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current cooperation under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operation in the Area of Clea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signed October 11, 2011. They noted the decision by DOE and MOTIE in December 2012 to launch joint projects in smart grid and fuel cell vehicle technologies, and looked forward to exploring additional mutually beneficial collaborations in technology areas such as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smart grid, energy storage, green transportation, and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welcomed the extension of the Statement of Int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Gas Hyd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signed April 18, 2008.

Noting the important role that shale gas can play in promoting energy security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shared the view that DOE and MOTIE should consider ways to share information on topics of mutual interest related to shale gas. To that end, DOE in conjunction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MOTIE are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bringing togethe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expert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noted the successful proceedings of the Fourth Clean Energy Ministerial, held in India on April 17-18, 2013, and welcomed Korea's leadership in hosting CEM5 in 2014. Noting the important role of the Clean Energy Ministerial, Minister Yoon committed to making CEM5 a great success, and both stated that they looked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other major economies on substantive work through the CEM in the year ahead.



## 참고3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 개요

□ **일시 :** 2013. 5.8 조찬, 08:00~09:00 (60분)

□ **장소** : 워싱턴 D.C. 헤이 아담스 호텔, 헤이 아담스 룸

□ **참석자** : 총 70여명

○ VIP, 공식 수행원 등

○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수행경제인 전원 (52명)

□ **주요행사 내용**

○ 대통령 모두말씀

○ 수행경제인 대표 발언

○ 환담 및 조찬

○ 대통령 마무리말씀

**참고4** 美 상의 주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오찬 간담회 개요

## 1. 미상의 주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일시) 2013. 5. 8(수) 13:00 ~ 13:40

□ (장소) 워싱턴 D.C. 윌라드호텔 네스트룸

□ (참석자) 29명

○ 우리측(18) :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홍보수석, 주미대사, 주요 기업인 11명

○ 미국측(11) : 주한미국대사, 브릴리언트 미 상의 수석부회장,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 데니스 뮬렌버그 보잉 부회장, 빌 로즈 씨티 수석 고문, 데이빗 코다니 시그나 회장,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 밴 앤델 암웨이 회장,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 모리스 그린버스 CV 스타(전 AIG) 회장, 스탠 게일 게일사 회장

□ 주요행사 내용

○ 대통령 말씀

○ 양국 기업인 대표 발언

- 한미 FTA 성과 평가, 창조경제 관련 제언,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

## 2. 미상의 주최 한-미 경제인 오찬

□ (일시) 2013. 5. 8(수) 13:40 ~ 14:30

□ (장소) 윌라드호텔 지하1층 볼룸

□ (참석자) 총 240여명

○ 우리측 : 공식수행원, 주요기업인 등 70여명

○ 미국측: 미상공회의소 회장, 미 재계 CEO급 인사 등 170여명

□ 주요행사 내용

○ 대통령 오찬 연설